

2023 대한민국 헌혈공모전(수기)

제목

2번의 수혈이 가져다 준 행복

저는 두 번의 수혈을 받았고, 헌혈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첫번째 수혈은 결혼을 하고 예쁜 가정을 꾸려 너무나도 소중한 첫째 딸을 낳고 돌이 되어갈 썸 무렵이었습니다.

이유없이 밤만 되면 복통이 있었는데, 이러다 말겠거니 하며 2주를 그냥 그렇게 참으며 보내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간만에 나들이도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갑작스런 복통으로 거실에 쓰러졌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놀란 가족들은 119를 불렀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차를 타고 가까운 곳에 있는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너무 큰 고통에 힘겨워했고, 간단한 진료 끝에 의료진은 저를 대학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며, 수액에 진통제만 넣어 앰블런스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앰블런스로 40분을 달려서야 겨우 대학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도착을 하니 바로 수술방으로 옮겨졌고 간호사들은 저의 뺨과 다리를 때리며 잠들면 안된다고 큰 소리로 저를 깨우시는 분들 팔에 주사를 꽂으시는 분들을 끝으로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배에는 피주머니가 3개나 주렁주렁 달려있었습니다. 그래도 배의 통증은 사라져 살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의사선생님께 들으니 제 병명은 자궁외임신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난소가 터져, 수술 직전엔 숨을 쉬기도 어려울만큼의 피가 배에 가득 찬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1시간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구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고 대단하다는 말씀과 함께...

자궁외임신으로 생긴 아이와 제 난소의 한쪽을 절제했고 그 때 수혈을 11팩이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생명을 구해준 첫 수혈이었습니다.

그 후 아무래도 난소가 한 쪽이 없다보니 둘째는 힘들겠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천사 같이 예쁜 첫째딸을 보며 둘째도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힘들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힘들게 생긴 둘째라 기쁨은 더 컸습니다.

노산으로 분류되어 검사할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임신 중기가 되었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선 전치태반이라는 걱정스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렇지만 후기로 가며 좋아질 수 있으니 저를 안심시켜 주시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임신 8개월이 되자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유착전치태반으로 이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겠다고 하시며, 대학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소견서를 건내 주셨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유착이 심해 자궁 적출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1달 뒤인 9개월 짜 수술을 하자고 하시어서 수술 일정을 잡고 돌아오는 길에는 많은 생각들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가진 둘째가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 1달이 지나 수술할 날짜가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이미 3팩의 수혈을 받고 수술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술방에 누워 응급시 수혈할 주사바늘을 목에 꽂을때는 정말이지 몸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양팔에 각각 하나 목에 하나 총 3개의 바늘이 꽂힌 채로 수술이 시작되었고,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둘째는 건강하게 태어났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건강하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9개월에 태어난터라 둘째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느라 면회도 안아볼수도 없었습니다. 입원기간 중 면회 할 기회가 딱 1번 있었는데 눈으로 볼 수 밖에 없었는데도 힘든 수술이다 잊혀질만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퇴원할때 알게된 사실은 자궁적출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줄 알았던 제 자궁이 그래도 절반은 남아있다는 소식과 수술 중 수혈은 총 14팩이나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번째 수혈로 둘째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헌혈자분들의 공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글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지요. 제 주변에도 꾸준히 헌혈하는 분들이 있어 수술할 때 헌혈증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번의 수혈을 받은 경험으로 헌혈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헌혈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생명을 지켜주고, 아이를 무사히 출산 할 수 있도록 해준 헌혈자분들과 관계자분의 노고에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